보도

주간 뉴스 브리핑

손수 담근 김치로 실천하는 이웃사랑

【국제】취업진로지원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는 손수 김장을 담가 수원지역 일대의 복지시설에 나누는 행사로 12월 4일 8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가 발급되며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성원은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service@khu.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준비반 모집

【서울】취업진로지원처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준비반을 모집한다. 진학준비반은 2011학년도 8월 시험을 대비해 운영되며 외부 LEET 전문학원에서 위탁교육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생활지원존에서 사전신청 후 진학준비반 박연경 지도교수와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설명회가 오는 12월 2일 오후 5시 청운관 B117호에서 개최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돼보자

【서울】오는 12월 10일까지 경희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주관으로 '2010 경희 사랑의 몰래 산타'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24일 오후 3시에 청운관 B117호에 모여 준비를 마친 후 5시부터 동대문구 인근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오리엔테이션은 22일 오후 3시에 청운관 B117호에서 진행된다.

책도 읽고, 기부도 하고

【서울】인문 · 사회 · 의학 · 예술 분야의 제적도서 전시회가 중앙도서관에서 오는 29일부터, 의학계열도서관, 한의학도서관 등 분관도서관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전시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권당 1,000원 이상의 도서관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내한공연 열려

12월 4일 우리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케냐 지라니 어린이합창단'의 내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국내 공연장에서는 초연되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들로 구성되며 모든 수익은 케냐 키쿠유 지역에 세워질 '지라니 아트 스쿨' 건립에 쓰이게 된다.

알림

셔틀버스 탑승위치 변경

【서울】국제캠퍼스로 가는 셔틀버스 탑승위치가 다음달 1일부터 청운관 앞에서 중앙도서관 앞 마로니에길 온실 앞으로 변경됩니다. 셔틀버스 탑승에 착오 없길 바랍니다.

1,800대 기업 정규직 취업률 21.5%, 취진처 프로그램은 '한산'

국주연 기자 kook@khu.ac.kr

【서울】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는 취업 특강, 1대 1 취업진로 지도 맞춤 컨설팅 등 취업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학생의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문과대학 학생회의 요청으로 준비한 취업특강에는 단 한명의 학생도 오지 않아 강의가 취소됐다. 또한 취진처에서는 금융, 마케팅, 삼성, 유통, 총무인사의 다섯 개 분야 취업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전 관련 소모임도 추가로 만들려 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무산됐다.

취진처에 따르면 1,800대 기업에 대한 서울캠퍼스의 2010학년도 정규직 취업률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7개 단과대(경영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의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졸업자의 건강보험 DB를 기반으로 한 결과다. 1,800대 기업에 교직과정, 법인, 공기업의 취업률을 더해도 22.8%로 이는 지난달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서울캠 2010학년도 취업률인 5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정진봉 팀장은 "토익무료특강도 겨우 인원을 채워 운영하고 있다.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생이 오지 않는다"며 "인적성검사를 대비하는 소모임, 중견기업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중견기업 Matching program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은 취진처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를 꼽으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서준우(언론정보학 2007) 군은 "취업특강은 매번 뻔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취업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캠퍼스의 'OK MVP(Outliers in Kyunghee - My Visioning Project)'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 1기를 모집한 OK MVP는 우수한 인재를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간 취진처에서 진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한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의 전문 컨설턴트가 이력서에서 실전 면접까지 개인별로 지원해주며,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우수 팀에게는 시상도 한다. 김세현(기계공학 2006) 양은 "OK MVP 이외에도 취업캠프, 카네기리더십코스 등 저학년 때부터 취진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학교가 학생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학생이 많이 참여해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사례와 같이 학생의 소극적인 의지와 취진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업률과 학생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희봉사단, 친환경 캠퍼스 조성 위한 에코캠페인

임송이 기자 song3819@khu.ac.kr

【서울】경희봉사단 에코캠퍼스팀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에코캠퍼스 캠페인'(에코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코캠페인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학교 구성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차 없는 캠퍼스, O2캠퍼스', '이면지 공책, 나무심는 공책', '소비자의 날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O2캠퍼스는 교내 차량 통행량을 줄여 캠퍼스 내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경희봉사단은 차량이용자에게 차량이용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은 재활용 휴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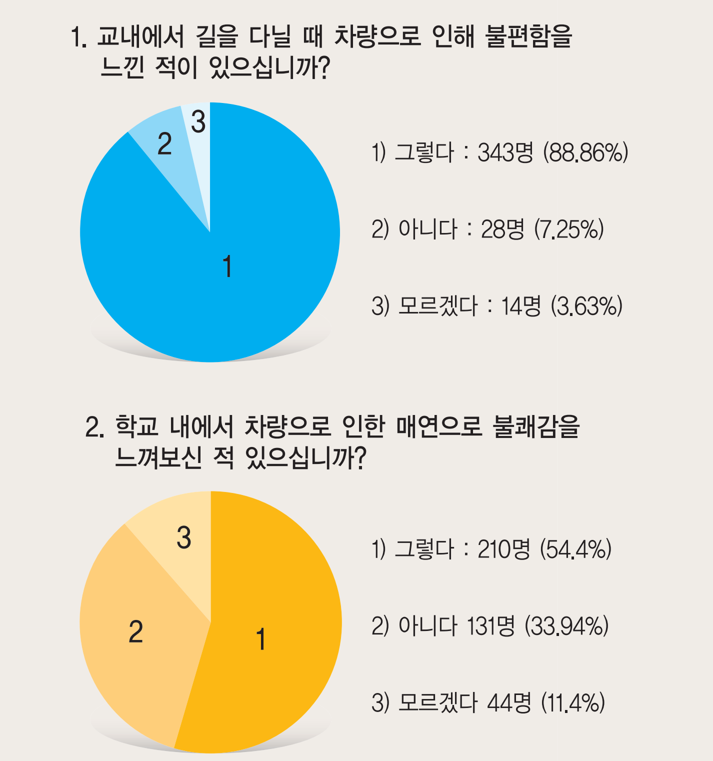
또한 경희봉사단은 종이사용을 줄여 숲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면지로 공책을 만드는 나무심는 공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만들어진 공책은 시험 전 주인 다음달 7일 학생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날 캠페인으로는 청운관 로비에서 버려진 가죽 원단으로 악세사리를 만드는 행사가 준비돼 있다. 서식지가 파괴돼 고통받고 있는 고릴라 모양의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환경과 무분별한 소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단 소비자의 날 캠페인의 경우 2,000원의 참가비를 받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에코캠페인의 일환으로 경희봉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내 차량통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38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길을 다닐 때 차량 때문에 불편했다'고 343명(88.86%)이 답했으며, 학교 내에서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학생도 210명(54.4%)으로 나타났다.

<학내 차량 통행에 대한 학생 의식 설문조사>



• 설문시기 : 11월 22일 ~ 24일 • 설문 완료 응답자수 : 385명
• 설문방법 : 온라인 〈자료 제공 : 경희봉사단 에코캠퍼스 팀〉

취재수첩

현수막과 문자를 넘은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때

국주연 (기자)

'21.5%.'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7위, QS세계대학평가 345위에 빛나는 우리학교의 2010학년도 1800대 기업 정규직 취업률이다.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치는 그동안 서울시내 유명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현실을 안일하게 판단했던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20대의 취업현실은 사실 저 수치보다 더 치열하고 절박하다.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돕고자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진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지극히 소수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아도 학생이 와서 먹지 않는 셈"이라는 취진처 정진봉 팀장의 말처럼 취업은 어렵지만 정작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문제를 홍보부족이라고 판단한 취진처는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학생의 참여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학생의 관심부족과 의지부족이 문제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학생의 입장은 다르다. 현수막과 문자의 내용만 보고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학생이 맞닥뜨린 취업현실은 너무나 급박하다. 결국 취진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만 있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여지는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취진처의 프로그램이 진정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기존의 간접적인 홍보에서 그치면 안 된다. 학생의 요구를 알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취진처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첨삭,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앞으로 학생이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도 있다.

학교의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보다 제대로 안착돼 학생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 취진처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면 언젠가 21.5%라는 수치는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한 취진처의 소통에 답이 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 · 편집인 조인원
주간 송병록
부주간 김민전
편집장 권오은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 독 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02-961-0093~4
주소정정문의 / 02-441-7317(미래기획)
서울캠퍼스
우)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02-961-0093~5, FAX 02-6442-5849
국제캠퍼스
우)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인터넷 전자메일 master@mediakhu.ac.kr